

1/22/17

설교 제목: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5:35-49

(고전 15: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전 15: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절관주** 요 12:24

(고전 15:37)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고전 15:38)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절관주** 시 104:14

(고전 15: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전 15: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전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 15: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고전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절관주** 창 3:19, 요 3:31

(고전 15:48) 무릇 흠에 속한 자들은 저 흠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절관주** 빌 3:20

(고전 15: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절관주** 창 5:3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두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는 것입니다.

(고전 15: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전 15: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일갈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메시아)냐 아니냐,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후 부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하는 문제가 달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 법정 시스템은 어떤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열두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오백여 성도들을 증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입장도 정리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부활하는 것임을 알려 주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첫 번째 질문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고전 15: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전 15:37)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고전 15: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자연계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이 벼나 밀을 직접 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의 낱알 곧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썩는 대신 그 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각각에 부여하신 형체를 가진 열매가 나옵니다.

예를들면 하나님께서는 벼와 밀의 낱알을 썩게 한 후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 벼와 밀의 형체가 나오게 하십니다.

사람의 부활도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몸이 땅에 묻혀 썩어진 후 부활의 형체(몸)으로 변형되어 부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몇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씨(종자)가 썩어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람도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씨를 보고 열매의 형체를 알 수 없듯이 육의 몸을 보고 부활의 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씨앗과 열매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연속성이 있듯이 현재의 육체와 부활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의미입니다.

네째, 어떤 형체로 부활하느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나 영계나 생명이 잉태되고 영광의 결실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고전 15: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전 15: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육체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몸의 영광도 각각 다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지라도 그 영광이 각각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충성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영광도 다를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임도 합니다.

다음은 고린도 교인들의 두번째 질문인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은 현격히 다를 것입니다.

첫째,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씩을 것'이란 현재의 몸을 가리킵니다.

'씩을 것으로 심고'는 육체의 죽음과 매장을 뜻합니다.

죽음은 범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받은 부활의 몸은 결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육된 몸에서 영광스런 몸으로,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전 15: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몸' '약한 몸'이란 병들고 신음하다가 결국 죽을 운명을 띤 몸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영광스런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닮은 몸을 말합니다.

(빌 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째,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란 타고난 죄성을 지닌 몸, 즉 죄악된 욕구와 걱정의 지배를 받는 몸을 가리키고 '신령한 몸'이란 죄성이 없는 몸,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을 가리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체를 아담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대조해 가며 설명합니다.

(고전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 (1)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에 대해 계산을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부활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믿는 우리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전 15: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이셨지만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사실이 육신의 생명에 가리워져 있었으며 부활 후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고전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이 땅에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신성을 가지신 영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그가 때가 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육이 아니며 영이고 그의 소속은 땅이 아니며 하늘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고전 15:48)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고전 15: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가리키고 '흙에 속한 자들'은 부활 전의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또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장차 부활할 성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는 흠에 속한 아담과 같지만 성도는 부활할 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모습을 닮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흠에 속한 자' 곧 첫 사람인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장차는 '하늘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들어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이 있습니다.

(고후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장차 하늘의 장막에 들어갈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늘의 장막에 거할 우리 성도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과는 현격히 다를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할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육체의 요구와 죄성이 있지만 부활의 몸은 죄성이 전혀 없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되고 영광된 부활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